

16돌을 맞은 월간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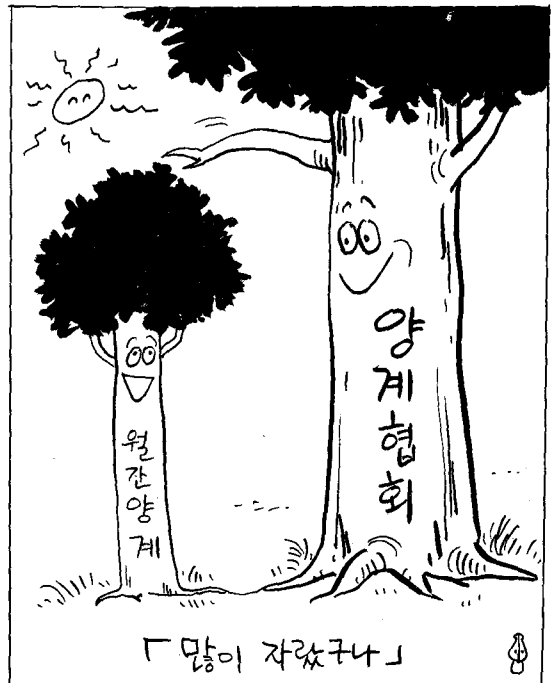
이번 11월호로 월간양계가 창간 16돌을 맞게 되었다.

1962년 12월10일 창립된(8. 25일 발기인 총회) 한국가금협회가 회지 발간의 뜻을 품은 것은 69년 11월 창간되기 약 2년 전부터였다. 개인업체와 달라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 다단하였었다. 당시의 상황은 양계인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로 매월 모이는 양계강습회에 업계의 중요의안을 보고하고 양계인들의 의견을 모았다. 물론 이런 과정 전에는 중진들로 구성된 이사회(매월 모임)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절차들이 일견하여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계인들은 사업에 대한 충

분한 이해와 애착과 주인의식을 갖게되어 내 일처럼 협조하게 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하나로 뭉쳐 응집된 힘으로 더욱 빨리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23년의 역사를 가진 협회의 생명속에서 월간양계도 함께 한것이다. 그간 양계산업은 에너지파동 등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성장하여



왔으며, 이제 다시 계산물의 수입개방이라는 어려움 앞에 있으면서 이를 이기고 보석처럼 갈고 닦아 생명력이 넘치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만드느냐 아니면 양계산업이 줄어들고 시드는 재난이 될것이나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월간양계는 이를 극복하고 이길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하려고 한다.

월간양계는 선장과 몇몇 선원이 이끌어가는 배는 아니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거대한 빙산이 물속에 보이지 않는 저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양계산업의 역사속에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바다밑에 숨겨진 많은 양계인들에 의해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10월은 의사소통의 계절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기억에 희미하지만 중세때 이태리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 하나가 생각난다.

이태리 황제는 인간의 기본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나면서부터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각기 영어나 헬라어, 독어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굳게 믿었다. 그래서 황제는 시실리섬에 대하여 출산후 부모가 아기와 아무말도 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게 된다. 그러면 아기들은 자연 인간의 기본언어라고 생각되는 히브리어를 하게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한다. 아이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것이다. 그 이유를 조



사해보니 부모의 사랑과 의견이 서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로 의사가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비극을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실증한다.

인류 최대의 비극이라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이지만 그후 노아때의 대 홍수에 이어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은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도록 각기 다른 말을 사용하게 하신 것을 들수 있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이룰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의사소통이 안되는 이유가 교만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지난 10월에는 많은 학술 발표회가 있었다. 2천년대 한국농업과학의 전망이 한국농업과학협회 주최로 개최되었고, 축산학회와 축산경영학회가 각기 축종별로 수급 및 가격안정화 방

안에 대해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행사는 많을수록 유익하며 더 욕심을 낸다면 범위를 좁혀서 좁더 깊이있게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심포지움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생각들을 교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학계, 업계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들수 있다. 제각기 바벨탑을 쌓으려다가는 무너지고 하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문적인 뒷받침없는 산업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정책적인 뒷받침없이 산업이 발전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정책 수행이나 학문의 대상으로 산업이 필요한 것은 더욱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즉 말이 통해야 한다.

대화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할수 있어야 하며 나의 의견을 상대방도 듣고 이해하도록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강습회나 잡지를 통한 일방적 설득이 아닌 대화가 필요함을 10월에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하였다.



칠면조와 기타 가금육 수입 개방

10월 31일 발표된 86~88년까지의 수입개방 품목중에 내년 7월 1일부터 칠면조고기와 닭·오리 등을 제외한 각종 가금육 및 가금의 설육(edible meat offal)이 포함되어 있다. 직접 닭고기가 개방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

각해야 하는지?

국내 칠면조 사육농가가 거의 없고 설육이 수입된다 해도 수요층이 적기 때문에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국내 바나나 생산농가가 거의 없지만 바나나 수입시기에 따라 참외, 수박을 비롯해서 사과, 감귤 등 국내 과수업계가 몸살을 앓는 것을 보아 왔기 때문이다. 또 값싼 칠면조고기는 가공식품으로 시장을 넓혀갈 것이고 만두속, 라면, 수프 등 닭고기 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할것으로 보인다.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의 대체가 어느 정도가 될런지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양계산업이 축산업중 가장 먼저 전업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가장 최근의 농수산부 통계를 보면(85년 9월) 347,414호의 양계농가중 그래도 영세성을 면했다고 할수 있는 만수 이상 사육 농가는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1,139호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99.7%에 해당되는 농가는 조그만 충격에도 견디기 어려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계산업이 그간 사료산업과 동물약품, 기계기구 등 관련산업 발전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왔으며, 이외에도 배합사료, 지대, 운반 및 축사신축에 필요한 건축자재와 도계 및 계산물 유통분야 등 광범위하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있어 양계산업의 위축은 축산업계 전반에 주름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앞으로(87년) 통조림 등 가공식품의 형태 등으로 계속 밀려올 것을 유념하여 업계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할것이다.

생산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수입업자와 국내유통업자 생산자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제도적으로 국내가격과 수입물량을 조절하는 장치를 만들어 계산물 가격안정화 방법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도 관세와 부과금제도 등으로 산업이 안정될수 있도록 하면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은 최소화 할수 있을 것이다.